

## 미, 한국에 知財權 보호 입력 강화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

美섬유생산협회(TPSA), 美지재권연합(IIPA) 등 미국의 기업 및 단체들이 우리 나라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명목으로 PFC나 PWL로 지정해 줄 것을 USTR(美무역 대표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OTRA海外市場에 따르면 TPSA는 한국기업이 미국의 섬유제품 디자인의 불법도용이 심하다는 이유로 우리 나라를 PFC(우선협상대상국)로 지정해 줄 것을 USTR에 요청했으며, IIPA는 지난

해 한국의 컴퓨터프로그램, 영화, 음반, 서적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기업이 입은 피해 규모가 4억2천3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평가하고 우리 나라를 PWL(우선 감시대상국)로 지정해야 하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국가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미국의 소프트웨어 출판협회, 의약품 생산자협회 등이 우리 나라를 PWL로 지정할 것을 요청해 놓고 있으며, 국제특허협회 등 3개 단체도 우리 나라를 지적권 미

보호국가로 거론하면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국가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요청서를 바탕으로 오는 4월말까지 지적재산권 관련 지정대상국가를 발표할 예정이며, PFC로 지정되면 6개월 또는 9개월 내에 조사 및 협상을 하게 되며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무역 등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 PWL로 지정된 바 있다.

## 한국과학기술지 러에 첫 설립

합작형태로 추진

러시아에 우리 나라 최초의 현지 법인 형태의 과학기술 연구기지가 설치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러시아로 부터의 과학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러시아 내에 현지법인 형태의 연구기지 발족을

러시아에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이 연구기지는 한국이 자본을 투자하고 러시아측은 연구시설과 장비 및 연구인원을 제공하는 합작형태를

취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투자를사를 확인중에 있으며 러시아측에서도 이미 6개연구기관이 참가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 한국인은 이제 세계인과 경쟁합니다